

JUVENILE TITLES

FICTION

제목 : THE TALES OF FAYT SERIES

가제 : 파이트 항구 이야기 시리즈

저자 : Conrad Mason

출판사: Corgi Childrens

발행일: 2012년 3월 1일(1권) / 2013년 4월 4일(2권) / 2015년 7월 10일(3권)

분량 : 416 페이지(1권) / 416 페이지(2권) / 373 페이지(3권)

장르 : YA 소설



지하세계에서 악마의 시계로 활동하는 존재들, 파이트 항구를 지키는 매력적인 주인공들의 모험을 그린 판타지 3부작이 탄생했다. 8세부터 12세 어린이들을 겨냥한 시리즈로, 코믹한 요소가 가미된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펼쳐진다.

1권: 악마의 시계(The Demon's Watch)

반은 인간, 반은 요괴의 몸으로 태어난 소년 조셉 그룹은 엘프 요정부터 트롤 난쟁이, 요정, 인간이 모두 함께 모여 사는 항구 도시 파이트에서 살고 있다. 늘 북적북적한 항구의 작은 여관에서 일하며 숙식까지 해결하고 사는 그룹은 늘 자유를 찾아 떠나는 날을 꿈꾼다. 그러다 한 밀수업자와 우연히 만나면서, 그룹은 온갖 범죄자들이 모여드는 파이트 항구의 지하세계에 휩쓸려 들어가고 만다. 그곳에서 만난 '악마의 시계'라는 이상한 이름의 단체. 그룹은 이들이 파이트 항구를 뿌리도 이유도 알 수 없는 무서운 위협으로부터 지키는 일을 앞장서서 도맡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어느덧 그들의 일에 동참하게 된 그룹. 새로 만난 친구들과 함께 그 미스터리한 어둠의 세력을 제 때 찾아내고 막을 수 있을까? 작전에 실패하면, 이들은 모두 상어에게 먹혀 버리고 말 것이다.

2권: 고블린의 선물(The Goblin's Gift)

‘악마의 시계’에 신입 단원이 된 조셉 그럽. 시끌시끌하지만 늘 평화로운 파이트 항구를 지켜내는 것이 그럽과 친구들의 몫이다. 그런데 전지전능한 힘을 과시하는 ‘빛의 동맹’이 파이트를 지도상에서 지워버리기 위해 거대한 함대를 보내면서, 악마의 시계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해진다. 파이트 항구가 살아남으려면 방법은 하나 밖에 없다. 반은 인간, 반은 물고기의 모습을 한 마법의 존재 인어들에게 함께 싸워달라고 설득해야 한다. 그러나 인어들은 절대로 전쟁에는 개입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한다. 하지만, 예보니 해에서 가장 위험한 존재로 알려진 아홉 살짜리 인간의 손에 빼앗기고 만 인어 왕국의 공주를 구해온다면 기꺼이 돕겠다고 말한다. 그럽과 친구들은 서둘러 인어 공주를 구출하러 나서고, 그 와중에 조셉의 숨기고 싶은 과거가 드러나면서 일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간다.

3권: 영웅의 무덤(The Hero's Tomb)

몸의 반은 인간, 반은 요괴로 태어난 조셉 그럽은 전혀 모르고 살았던 부모님의 진실을 찾아 떠난다. 목숨을 잃을 지도 모를 ‘빛의 연맹’의 사악한 힘으로부터 그럽을 지켜주기 위해 친구 타미타도 따라 나섰다. 목적지는 역사상 가장 방대한 규모를 자랑했던 도시 아주마우스. 그러나 그럽과 타미타가 도착했을 때, 화려했던 예전 도시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다. 그러나 타미타의 수호자인 뉴튼 장군은 빛의 동맹의 사악한 개런 공작이 훔쳐간 고대 보물을 다시 찾기로 결심하고, 그를 필두로 옛 군대가 다시 살아나면서 아주마우스에 오랜 세월 묻혀진 비밀들이 하나 둘 깨어나기 시작한다. 빛의 동맹 역시 고대의 능력을 불러 일으켜 압박하고, 그럽과 타미타, 뉴튼 장군은 지금까지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두려움에 사로 잡힌다.

<저자 소개>

콘라드 메이슨(Conrad Mason)은 캠브리지 대학교에서 고전문학을 공부하고 런던으로 옮겨가 북극곰, 전후 영국의 역사 등 다양한 주제로 책을 썼다. 현재 아동 소설 편집자로 일하면서 YA 소설을 집필하고 있다.

제목 : THE MEMORY OF OBJECTS

가제 : 물건에 남겨진 기억

저자 : Danielle Mages Amato

출판사: -

발행일: -

분량 : -

장르 : YA 소설



갑자기 세상을 떠난 오빠, 사이코메트리 능력을 가진 소녀가 죽음을 둘러싼 비밀을 찾아 나서다
물건을 만지거나 가까이 가면 그 물건을 소유한 사람의 이야기가 그대로 전해지는 사이코메트리의 세계, 그 기묘한 세상에 들어선 한 소녀가 특별한 능력으로 오빠의 죽음을 둘러싼 미스터리를 풀어헤치기 시작한다.

메건 브라운은 버지니아 주에서도 부유층이 모여 사는 교외 한적한 마을에 살고 있다. 어느 날 메건이 평소 누구보다 따르고 좋아했던 오빠 타일러가 갑자기 사망한 채 발견되는 비극적인 일이 발생한다. 게다가 경찰이 밝혀낸 사인은 오빠를 두 번 죽이는 일이나 마찬가지였다. 오빠가 해로인 과용으로 목숨을 잃었다는 것이다. 경찰의 발표 이후, 늘 쾌활하고 사람들에게 사랑 받던 오빠는 한 순간에 약물 중독자에 범죄자로 추락하고 말았다. 상세한 부검 결과는 4주 뒤에 나오기로 예정되었지만, 이런 사실을 도저히 믿을 수 없었던 메건은 그 전에 오빠의 명예를 되찾고 행복한 기억을 지켜야겠다고 마음 먹는다. 그리고 메건에게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이 있었다. 바로 물건을 만지면 그 물건에 담긴 이야기가 모두 전해지는 신비한 능력이었다. 열다섯 살 어린 나이지만, 지독히도 내성적인 성격을 가진 매건은 주변에서 찾은 물건들을 모아 하나의 콜라주 작품으로 완성하는 일에 심취해 있었다.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던 오빠가 사라진 슬픔 탓인지, 메건의 예술적 재능은 마치 기름을 끼얹은 듯 활활 타기 시작하고 물건에 담긴 사연을 느끼는 능력도 한층 강화된다. 그리고 마침내, 오빠가 남긴 물건들을 만지자 과거의 일들이 모두 메건에게 전해지기 시작한다.

그런데 물건이 들려주는 오빠의 이야기는 메건이 평소 알던 모습과 전혀 달랐다. 타일러는 워싱턴 D.C를 비롯해 메릴랜드, 버지니아 주 전역의 사립학교와 공립학교 학생들을 아우르는 비밀 조직을 조직했고, 조직 활동의 일환으로 워싱턴에 사는 부유층의 부정부패와 독재 행위를 세상에 알리기 위해 같은 반 친구의 부모님이 가진 물건을 훔치는 일도 서슴지 않았다. 게다가 링컨 암살자로 악명 높은 존 윌크스 부스를 평소 대단히 숭배하면서 집착에 가까운 애정을 키웠다. 메건은 생각지도 못한 오빠의 과거와 실체를 직접 확인하고 크게 절망한다.

죽은 오빠의 물건들에 담긴 믿기 힘든 과거, 그 계획을 막으려는 세력들의 추악한 진실

결국 메건은 역사가이자 사라진 예술품을 전문적으로 찾아 다니는 탐정을 만나 도움을 요청한다. 그는 메건의 특별한 능력을 기꺼이 이해하는 사람이자, 살인과 관련된 물건이 전하는 기억을 바탕으로 풀리지 않는 사건의 진실을 찾는 일에 정통한 사람이었다. 그리고 오빠와 가장 친하게 지낸 친구 네이션도 메건을 도와주기 시작한다. 두 사람의 도움으로, 타일러가 미국의 수도에 남몰래 형성된 현대판 계급 사회를 무너뜨리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메건은 그 과정에서 현재 워싱턴에서 가장 막강한 영향력을 자랑하는 상원의원에 관한 충격적인 진실을 알게 된다. 영문을 모른 채 슬픔 속에서 오빠의 죽음에 얽힌 비밀을 찾아가는 메건의 떨리는 목소리와 생각들이 그녀의 관점에서 생생하게 전해진다.

<저자 소개>

다니엘라 마게스 아마토(Danielle Mages Amato)는 샌디에고 캘리포니아 대학교에서 연극 예술 석사를 취득하고 희곡 문학으로 박사 학위를 받았다. 현재 캘리포니아 ‘올드 글로브 씨어터(The Old Globe Theatre)’에서 문학과 극 작품 연구가로 근무 중이다. <San Diego Union Tribune>, <Theatre Forum International Theatre Journal> 등에 글을 기고했다.